

후백제 역사 정체성 확립 · 재조명 나선다

전주시 등 7개 시·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식·학술대회 개최 완주·장수·진안·문경·상주·논산 등 참여... 초대 회장 김승수 시장 추대

전주시를 포함한 후백제문화권 7개 시·군이 후삼국시대의 주역이었던 후백제 역사문화를 제대로 규명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꾸렸다.

전주시 등 후백제문화권 7개 시·군은 지난 2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후백제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이날 발족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전북 전주·완주·장수·진안과 경북 문경·상주, 충남 논산 등 후백제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산적해 있는 시·군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했다.

발족식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성명 완주부군수, 김창열 진안부군수, 이희성 장수부군수, 주산동 상주시 행정복지국장, 김진수 논산시 동고동락국장, 임원식 문경시 문화예술과장이 참석했으며,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을 비롯한 후백제 관련 민간단체 회원들과 학계 전문가들도 자리를 빛냈다. 송화섭 전북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을 축하했다.

그간 협의회 출범에 주도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해온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돼 향후 2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부회장은 고윤환 문경시장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



전주시 등 후백제문화권 7개 시·군은 지난 2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여러 지역에 분포된 후백제의 발자취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후백제사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전환하고 후삼국시대 최강대국인 후백제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입을 모았으며, 지자체별로 창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족식 이후에는 협의회 출범을 기념하고 향후 후백제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후백제의 정체성과 범주'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도

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최홍선 국립익산박물관장,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 진정환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실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후백제문화권의 범주에 대한 고찰에 나선 이도학 교수는 "백제를 재건한 진흥(견훤) 왕의 행적과 관련된 유적지는 전국에 미치고 있다"면서 "전주를 비롯한 7개 시·군 외에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당진, 논산, 순천, 광양, 여수 지역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홍선 관장은 "후백제 문화상을 논하기 위해선 백제와 신라의 유적인 익산 왕궁리, 익산 미륵사지, 부여 부소산성, 공주 공산성, 광주 무진고성, 전주 동고산성 등 핵심유적에 대한 세밀한 분석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며 "전주 낙수정, 무릉마을 절터, 자만동 일대 등에 대한 발굴조사와 문화재 분포범위 지정도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광승훈 청원사 불교문화연구소장과 박성배 순천대학교 학예연구사, 권혁주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회도 운영됐다.

향후 전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은 연 2회 단체장회의를 열어 후백제문화권 문화유산과 연구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역사문화권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후백제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나이가 다른 지자체의 추가 참여를 이끄는 한편 '역사문화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으로 찬란했던 후백제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조명하는 데 탄력을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뿐만 아니라 충남과 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후백제의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장소로 본 전주정신 꽃심'

시, 제4회 전주정신 포럼 갖고 '꽃심' 재조명

전주 곳곳에 새겨진 전주정신 '꽃심'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장이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장소로 본 전주정신 꽃심'을 주제로 제4회 전주정신 포럼을 열고, 전주시 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번 포럼은 전주정신 '꽃심'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대동 △풍류 △울골을 △창신을 각각의 주제로 삼아, 장소에 새겨진 전주정신 '꽃심'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와 유대수 사단법인 문화연구청 대표, 이도희 동화농민혁명군의 전주정신 대상을 유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삶의 대동'이 구현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원도연 교수는 "궁극적으로 대동사회의 핵심은 공유, 공정, 신뢰,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면서 "전주 남서문 밖 장터는 동화농민혁명군의 전주정신 대상을 유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삶의 대동'이 구현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대수 대표는 '풍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풍류는 멋, 즐거움, 예술과 자연의 음미와 교감 등 삶

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낭만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면서 "전북예술회관 근동을 비롯해 남부시장 매곡교 밑, 싸전다리 밑, 경기전 모퉁이의 잠기마당, 덕진공원 등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울골음'의 경우 이도희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입진왜란 때 관과 민이 힘을 합쳐 보존한 곳인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은 전주의 울골음이 발현된 대표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창신'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태영 명예교수는 "시가 원판본문화관을 개설해 조선시대 전주의 완판본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완판본의 문화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디지털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광병창 우석대학교 교수와 김기현 고전번역원 전주분원장, 김승중 토지학회장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이어졌으며, 이도희 전 안동대학교 교수로부터 안동정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주정신 '꽃심'을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시는 4년간 이어온 포럼의 성과들을 자료로 엮어 대중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시 중소기업인연합회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전주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한다.

전주시와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임동욱)는 지난 26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술교육동 3층 대강당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병·난방 효율 높이기 △전자기기 사용 시 전력소비 최소화하기 △저탄소 인증제품 및 우리 지역 농축산물 구매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회화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생활화하기 등 일상 속 실천에 동참하고 중소기업 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남부시장 청년몰 개장 10주년 행사 열려

전주시·전주 남부시장번영회, 포럼·공연·체험행사 등 진행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 모델로 각광을 받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개장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전주시와 전주 남부시장번영회(회장 하현수)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남부시장 청년몰 및 하늘정원에서 '남부시장 청년몰 개장 1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부시장 청년몰을 성원해준 시민과 관광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는 캠핑장, 정원, 놀이공원, 뉴트로 등 4가지 주제로 된 테마 공간과 포토존이 마련됐으며, 각종 체험행사, 지역 청년 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영화 상영, 포럼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

졌다.

26일에는 '청년몰 2.0 새로운 도약, 다시 10년을 기획하다'를 주제로 한 청년몰 포럼이 운영됐다. 포럼에서는 남부시장 청년몰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본 뒤 지속가능한 청년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7일에는 지역 청년 예술인과 함께하는 어쿠스틱·펑크 공연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와 연계 진행돼 남부시장과 청년몰이 함께하는 스탬프 투어와 오징어게임 등 부대행사도 펼쳐졌으며, 청년몰 상인들의 참여로 진행된 도자기 공예

품과 전통매듭(소원팔찌), 도시락 케이크 만들기 체험 행사들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전주 남부시장번영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남부시장 청년몰을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청년상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문전성시' 사업으로 조성된 남부시장 청년몰은 남부시장 2층 빈 공간에 청년들이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아이템과 인테리어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 23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김윤상 기자

주거취약계층 '아동 공부방 꾸미기' 지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서전주로타리클럽·에코스ENC

전주시와 지역 봉사단체, 민간기업이 손을 맞잡고 주거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박지원), (주)에코스ENC(대표이사 이병섭)는 지난 26일 주거취약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서전주로타리클럽이 사업을 총괄한 가운데 (주)에코스ENC가 1000만 원을 후원하고, 전주시 주거복

지센터가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진행을 담당해 추진됐다.

이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이 학습동기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책장, 도배·장판 등을 지원해 공부방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줬다.

박지원 회장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새로운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뉴딜산업의 성장동력, 탄소 Zero 실현!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중심

분양가

50만원/3.3㎡

분양문의

1577-4139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사업시행 K2 한옥농어촌공사